

‘얼차려’시달린 의경도 자살

96.6.5

3일 밤 11시45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삼모스포렉스 12층 화장실에서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이일경(19·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) 일경이 영내의 기합 중지를 요구하며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했다.

건물 경비반장 김가현(52·광명시 광명1동)씨는 “근무중 ‘쿵’ 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이 일경이 콘크리트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엎드린 자세로 숨져 있었다”고 말했다. 이 일경은 “김아무개 상병과 고참들이 나를 무척이나 괴롭

혔다”며 “가혹행위, 얼차려가 사려지길 바란다”는 내용의 유서 2장을 남겼다.

서울 중앙경찰서에 근무하는 이일경은 이날 방법순찰 근무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 일경의 아버지 명일(52)씨는 경찰에서 “상범이가 외박을 나올 때면 고름이 나오는 정강이를 보여주며 구타 때문에 못살겠다는 말을 했다”며 “가족들에게 부서를 옮기게 해달라는 부탁을 자주 했다”고 말했다. 이용인 기자